

碩士學位 請求論文

*Henderson the Rain King:*  
Henderson의 Africa 여정과 실존적 자아탐구

指導教授 卞 鐘 民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英語教育專攻

韓 英 淑

1995年 8月 日

*Henderson the Rain King:*  
Henderson의 Africa 여정과 실존적 자아탐구

指導教授 卞 鐘 民

이 論文을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1995年 5月 日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英語教育專攻

提出者 韓 英 淑



韓英淑의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1995年 7月 日

審査委員長

審査委員

審査委員

梁 卞 鍾 民 韓 英 淑

*Henderson The Rain King:*

Henderson의 Africa 여정과 실존적 자아탐구\*

韓 英 淑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英語教育專攻

指導教授 卞 鍾 民

Saul Bellow는 혼란스럽고 비인간화된 우리의 시대에 인간의 가능성과 위엄을 지켜나가고자 정신적 저항을 하는 사람들을 그의 소설의 주요 등장인물로 다루고 있다. 그리고 인간의 존재의미에 대한 끊임없는 탐구와 인간의 실존을 위협하는 현대 산업사회의 엄청난 압박감을 활기찬 역사의식과 미학적 배려를 가지고 기록하고 있다. *Henderson the Rain King*에서 Bellow는 자아의 구원을 추구하는 인물인 Henderson을 주인공으로하여 인간존재의 목적을 분명히 하기위해 삶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즉 죽음의 문제에 대한 해결을 시도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물질적인 풍요로움속에서도 늘 내적인 공허감과 갈망을 안고 살아가는 주인공 Henderson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내적갈망을 해소하기 위하여 경험하는 여행의 과정을 살펴보고 그 의미를 논의하였다.

Henderson에게 있어서 삶의 본능은 몹시 강하다. 그는 자신의 관점을 변화시켜야하고 새로운 감정적 습관을 획득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을 만큼의 충분한 삶의 의지를 가지고 있다. 그 자신의 변화에 대한 욕구는 그의 내부에

---

\* 본 논문은 1995년 8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임

서 들려오는 “I want”라는 외침에 의해 상징적으로 표현된다. 그 목소리는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갈망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을 인식하고자 하는 욕구이며, 피할 수 없는 인간조건으로부터 도피하고자 하는 바람이기도 하다. Henderson의 아프리카여행은 바로 이러한 욕구와 바람의 결과이다.

그는 정신적인 것을 찾기위해서 신체적인 것을 경험한다. 즉 사자의 속성을 받아들이면서 그는 돼지 속성에서 벗어나게 되고, 사자의 우리속에서 인간적 고결함의 잠재적 능력을 현실로 받아들이면서 다시 태어난다. 무엇보다도 그는 진정한 삶을 찾기 위하여 죽음에 접근하며, 결국 Dahfu의 죽음을 통해 상징적으로 죽음을 경험함으로써, 정신적 재생을 이룩하게 된다.

그리하여 그는 Becoming의 상태에서 Being의 상태로 변화되고, 이기주의적인 성격이 이타주의적으로 변화를 겪으며, Dahfu에게서 얻은 사랑의 메시지를 가지고 문명사회로 복귀한다. 그는 이제 자아인식을 통하여 인류애를 지니고 그의 “service ideal”을 발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

# 목 차

I. 서론.....	1
II. 소외와 죽음의 의식으로부터의 도피 : 여행의 동기...	6
III. 실재(Reality)의 인식과 수용 : 여행의 과정.....	16
IV. 실존적 자아인식과 재생 : 여행의 결과.....	35
V. 결론.....	46
참고 문헌.....	50
Abstract.....	53



## I. 서론

2차세계대전 이후의 혼란스런 사회분위기 속에서 미국의 문학장르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중심주제의 상실, 리얼리즘의 붕괴, 역사와 보고문학(reportage)의 불확실성과 더불어 absurdism과 black humour가 난무하면서, 전통적 소설의 중심개념인 story 전개, 인간성 탐구, 사회와 정치 및 문화에의 동참의 기능등에 심각한 문제가 제기된 것이다. 미국의 문학비평가인 Ronald Sukenick이 소설에서의 story와 그 연속성의 종말을 주장하면서, “reality doesn’t exist, time doesn’t exist, personality doesn’t exist”<sup>1)</sup>라고 진술한 것은 그 시대의 소설작품의 성향과 분위기를 극명하게 드러내준다고 하겠다.

이토록 전통적 문학개념에 대한 도전적 분위기에 불구하고, 1979년 Nobel Prize의 수락연설에서, Saul Bellow는 “The novel’s moral humanism is by no means defeated, therefore, though it remains, as indeed it always was, provisional; the novel persists, as a sort of latter-day lean-to, a novel in which the spirit takes shelter.”<sup>2)</sup>라고 천명하며 소설문학 본래의 인본주의적 목적을 강력히 옹호하였다. 이와같이 전통적인 문학개념을 바탕으로 Bellow는 시종일관 인간과 현실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작품속에 반영해 온 작가이다.

John J. Clayton이 “In all his novels the defense of human dignity and human possibilities, even in a dehumanized age, stands central.”<sup>3)</sup>라고 말

1) Malcolm Bradbury, *Contemporary Writers* (New York: Methuen, 1982), p. 17.

2) *Ibid.*, p. 18.

하듯이, Bellow는 혼란스럽고 비인간화된 우리의 시대에 인간의 가능성과 위엄을 지켜나가고자 정신적 저항을 하는 사람들을 주요 등장인물로 다루고 있다. Bellow가 소설에 거는 기대는 근본적인 진리를 추구하는 정신이며, 작가로서 인간이란 무엇이며,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끊임없는 질문을 던지며 나름대로 명쾌한 해답을 제시하고자 한다.

Bellow의 소설은 *Dangling Man*(1944)과 *The Victim*(1947)의 엄격한 형식에서부터 다소 느슨하고 picaresque풍의 구조를 지닌 *The Adventures of Augie March*(1953)와 *Henderson the Rain King*(1959)에 이르기까지 다양하여 소설형식에 있어서 liberal novel<sup>4)</sup>의 부활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시말해 Bellow의 소설들은 상당할 정도의 형식적 유연성과 다양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는 그가 소설이라는 형식을 진행중인 현실의 세계(the world of process)와 의식의 세계를 중재하는데 필요한 양식으로 이용하고자 한데서 비롯된 것이다. 한편 그의 소설들은 현대소설의 지배적인 특성과는 달리 주인공 중심이며, 종종 주인공 이름이 소설의 제목으로 등장하기도 한다. 그리고 주인공의 대부분은 남자이며 유태인이고 주로 작가나 지식인이면서 자아의 추구를 갈망하며 내적인 욕구를 탐색하는데 관심이 있다. 그리고 주인공들이 느끼는 환경적 압박이나 그들 자신의 인간성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은, 겹겹이 싸여있는 존재의 신비에 굴복하거나 사회적 현상을 수용함으로써 해답을 얻게된다. 요컨대 Bellow는 그의 소설에서 인간의 존재의미에 대

---

3) John J. Clayton, *Saul Bellow: In Defense of Man*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68), p. 24.

4) Bradbury, p. 29.

The liberal novel is the novel of Whiggish history, where there is some community of need between self exterior relationships for reality, civility and maturity, where the possibility of moral enlargement and discovery resides. It is thus attentive to history in both individual and community, finds both equally real, and grants to both a logical chronology of growth.

한 끊임없는 탐구와 인간의 실존을 위협하는 현대 산업사회의 엄청난 압박감을 활기찬 역사의식과 미학적 배려를 가지고 기록하고 있다.

처음 두 소설을 발표한 이후에 Bellow는 문체와 인식에의 변화를 겪고, 초기 작품의 엄격성, 유럽적 경향, 영혼의 탐색, 그리고 불안감에 지배된 형식에서 벗어나 활기있고 긍정적인 comedy로의 새로운 장을 연다. 그는 비참함이나 고통을 웃음으로써 희극화시킬 수 있는 modern comedy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인간고통의 슬픈해학으로부터 인간적 숭고함을 향한 희극적 열망으로, 역사적인 주행성(畫行性)의 세계로 부터 초월적인 영속성의 세계로 나아가게 된다. 따라서 1950년대 Bellow의 소설은 새로운 형식과 새로운 종류 그리고 새로운 조건의 주인공이 탄생되는 장이며, *Henderson the Rain King*(1959)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신화적, 심리적 은유를 이용한 picaresque 풍의 형이상학적 comedy형식으로의 변모를 나타낸다. 이토록 희극적 요소에 대한 그의 관심은, 소외의 주인공들을 묘사한 20세기의 다른 소설가들과는 달리 부정에서 긍정으로, 소외에서 적응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노력의 결과라고 하겠다.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Henderson the Rain King*은 바로 올바른 자아인식에 깊은 관심을 갖고있는 Bellow의 긍정적 신념이 집약된 작품이다. 희극으로의 방향전환에서 정점을 이루는 이 작품은 현실적 세계라기 보다는 상상의 세계, 역사적 사회라기보다는 전설적 시간과 공간에서 주인공 Henderson이 정신적 자아탐구를 하는 과정을 다루고 있다.

Bellow는 Henderson의 전설적인 이야기 속에서 자유로운 정신적 탐구를 위해 문명사회의 그물에서 벗어난 미지의 환상적 세계인 Africa를 배경으로 선택하고 있다:



In the fabulous story of Henderson, Bellow goes farther than he ever did toward freeing the individual's spiritual quest from the enmeshing substance of society. To this end, the magic never-land of Africa is chosen for setting.<sup>5)</sup>

Henderson의 Africa여행은 “The world is a mind. Travel is mental travel” (p. 167).이라는 그 자신의 말에서 추론할 수 있는 것처럼 자기의 내면세계에 대한 상상적 탐구여행이라고 보아진다.

주인공 Henderson은 피해자들인 Bellow의 초기소설의 주인공들과는 달리 유태인이라는 운명적 굴레에서 벗어난 최초의 인물로서, 그는 막대한 재산을 물려받은 Anglo-Saxon Protestant의 혈통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외적인 풍요로움에도 불구하고 Henderson은 자신의 삶이 늘 고통으로 가득차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In a sense Eugene Henderson is a caricature of all Bellow's characters who seek salvation.”<sup>6)</sup>이라는 Clayton의 말처럼, Henderson은 자아의 구원을 추구하는 인물이며 인간존재의 목적을 분명히 하기위해 삶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즉 죽음의 문제에 대한 해결을 시도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물질적인 풍요로움속에서도 늘 내적인 공허감과 갈망을 안고 살아가는 주인공 Henderson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내적갈망을 해소하기 위하여 경험하는 여행의 과정을 살펴보고, 그 의미를 논의하는 데 목적이 있다. Henderson과 비슷한 상황에 처한 현대인으로서,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추구함으로써 정신의 잠을 깨고자 노력하는 Henderson의 Africa 여행의 과정과 그 의미를 음미해 보는 것은 가치있으

5) Ihab Hassan, *Radical Innocence: Studies in the Contemporary American Novel*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1), p. 321.

6) Clayton, p. 167.

리라 생각된다. 제 2장에서는 Henderson이 자아탐구여행을 떠나게 되는 동기를 살펴보고, 3장에서는 그 여행의 과정을, 4장에서는 Henderson의 의식의 변화과정과 변모된 모습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II. 소외와 죽음의 의식으로부터의 도피: 여행의 동기

*Henderson the Rain King*은 표면적으로는 우습고 재미있는 피카레스크(Pecaresque)풍의 소설이지만, 내면적으로 보면 모든 현대인들이 공통적으로 갖고있는 정신적 갈등을 심각한 주제로 승화시킨 소설이다. 1958년 이 소설이 출판되었을 때의 반응은 다양하였다. 어떤 비평가는 너무 설교적이라고 불평하기도 했고, 다른 비평가는 이 소설의 회극적 문체가 오히려 철학적 전체나 신화적 구성을 모호하게 하고 있다고 평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또 다른 일군의 비평가들은 *Henderson the Rain King*에서 제시되는 메시지, 표현양식, 그리고 그 신화성 등에 찬사를 보내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사람이 Thomas R. Knipp으로서, 그는 이 소설이 재생신화가 상실된 시대에 살고있는 현대인들에게 그 신화의 경험을 새롭게 해 주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며 다음과 같이 논평한다:



The virtue of this novel lies not simply in its robust prose, its artful characterization, its rugged humor, or its moments of pathos; nor even in the mastery with which Bellow deploys his myth: the truth, from this arrantly subjective standpoint, is that the novel can be *undergone* as an experience . . . in an age when the myth of resurrection has unhappily lost a great deal of its meaning for us, Saul Bellow has helped us to experience the myth anew.<sup>7)</sup>

7) Thomas R. Knipp, "The Cost of Henderson's Quest," *Ball State University Forum* 10. 2 (1969), p. 37.

주인공 Henderson은 뚱뚱한 거구의 사나이이며 명문가 출신이다. 증조부는 국무장관을 지냈고, 주영대사와 주불대사를 지낸 큰할아버지들이 있는가 하면, 아버지는 대학자이며 Willam James와 Henry Adams와 같은 저명인사의 친구였다. 아버지가 남겨준 3백만달러의 유산 덕택에 그는 풍요롭고 자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었다. 그런데 그는 이돈을 가지고 Henderson가의 영지에서 돼지를 기르기로 결정한다. 그의 선택은 백만장자로서는 별난 것이며 결국 그의 이웃들을 화나게하는 요소가 된다. 왜냐하면 200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고색창연한 영지를 그는 돼지천국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I took all the handsome old farm buindings, the carriage house with paneled stalls-in the old days a rich man's horses were handled like opera singers- and the fine old barn with the belvedere above the hayloft, a beautiful piece of architecture, and I filled them up with pigs, a pig kingdom, with pig houses on the lawn and in the flower garden. The greenhouse, too-I let them root out the old bulbs. Statues from Florence and Salzburg were turned over. The place stank of swill and pigs and the mashes cooking, and dung.<sup>8)</sup>

Henderson의 돼지 사육은 자신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일반적인 삶에 대한 태도를 반영해 주는 것이다. 그의 첫번째 아내 Frances에게 돼지가 자신의 일부이니 다치게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p. 24)을 볼 때 그는 돼지에게서 동류의식을 느끼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이는 그의 성격, 식욕, 마음속에서

8) Saul Bellow, *Henderson the Rain King* (New York: Penguin books, 1976), pp. 20-21. 이후의 본문인용은 이 책에 의하며, 인용문 뒤의 괄호안에 면수만 적는다.

끊임없이 외쳐대는 “I want, I want, I want” (p. 24).라는 목소리들은 모두 돼지의 속성이며, 그가 이타적으로 변화되기 이전의 이기적이고 소외된 모습이 돼지와 흡사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는 끊임없이 사사로운 문제를 일으키고 거칠고 공격적인 태도를 드러낸다. 그것은 아마도 그의 내부에서 끓어오르는 공허감이나 내적갈망에서 비롯된다고 하겠다. 그러나 거친것은 거친것을 낳고 분통은 분통을 불어나게 할 뿐이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Henderson은 인간본연의 문제에 골몰하게 된다. Henderson은 보온창, 양탄자, 그리고 플라스틱 덮개 등과 같은 현대사회의 불모적 정교품들로 둘러싸인 인간 전시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초현실적인 시각을 지니고 있다:

A man like me may become something like a trophy.  
Washed, clean, and dressed in expensive garments. Under  
the roof is insulation; on the pets furniture, and on the  
furniture covers, and drapes! All is swept and garnished.  
And who is in the midst of this? Who is sitting there?  
Man! That's who it is, man! (p. 24)

Henderson은 인간의 무가치성을 심하게 자책하며 이러한 상태에서 벗어나기를 광적으로 갈구한다. 그리고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소중하게 간직할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생활에서 극도의 공허감을 느끼게 되고, 그 결과 그의 가슴속에서는 늘 “I want, I want, I want” (p. 24).라는 내적 갈망이 소용돌이치게 된다. Donald W. Markos는 이토록 갈급하고 공허한 Henderson의 성격을 오늘날의 미국사회와 비유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In the character of Henderson himself we find both the destructive symptoms of alienation as well as a potential vitality for regeneration. Bellow has made Henderson appear often larger than life, a mythical figure who embodies many of the fears and aspirations of a whole generation of Americans. Like America today, Henderson is big, restless, wealthy, confused, gamey, given to exaggerated utterance, afraid of death, and most significantly, obsessed with the need for salvation.<sup>9)</sup>

즉 Henderson에게는 재생을 성취할 수 있는 잠재적 생명력 뿐만아니라 소외의 파괴적 징후를 찾아볼 수 있으며, 이는 온 미국인의 열망과 두려움을 구현하는 신화적 상징으로서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동시에 구원의 필요성에 집착해 있음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따라서 Markos는 Henderson을 중년의 나이에 접어든 붕괴직전의 미국의 Adam이며, 변화의 필요성이 있는 미국 그 자체를 상징하는 인물로 보고 있다:

He is the American Adam turned middle-aged and on the verge of a breakdown, trying to recover some lost quality of himself. . . . Henderson often seems to stand as a symbol for America itself - an America in need of change.<sup>10)</sup>

한편 Eusebio L. Rodrigues는 Henderson을 과학기술에 의해 손상된 인간영혼이 죽음이라는 대 명제에 부닥쳐 절규하는 20세기 미국사회의 모습으로 보

9) Donald W. Markos, "Life Against Death In *Henderson the Rain King*," *Modern Fiction Studies* 17. 2 (1971), p. 194.

10) *Ibid.*, pp. 194-95.

고 있다:

Henderson, continentally huge and containing multitudes, is twentieth-century America that now faces the biggest problem of all, the problem of the death of the human spirit damaged by a technology it cannot control.<sup>11)</sup>

Henderson은 넘쳐날 정도의 물질적 풍요의 세계에 속해 있으면서도 자신의 선조들과 문화로부터 분리되어 있음을 느끼며, 자신을 의미없는 유산의 상속자이며 한 곳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유랑민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어느 누구도 인생에 있어서 분명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은 없으며, 어딜가나 뿌리뽑힌 사람들로 득실거린다고 여긴다. Malcolm Bradbury는 다른 사람들이나 사회, 물질세계 및 자연세계와의 관계에 있어서 안정된 위치에 안주하지 못하고 늘 방황하면서 영혼의 탐구를 추구하는 Henderson을 형이상학적인 comedian이라고 부르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Disconcertingly positioned in relation to others, to society, objects and the natural world, rough, violent, physical, powerful, disoriented and soul-searching, Henderson is a metaphysical comedian, a supernatural bumbler with aspirations for his soul, a psycho-braggart speaking the great romantic vaunt of the Self.<sup>12)</sup>

미국이라는 거대한 사회조차도 Henderson에게는 일종의 감옥처럼 여겨지

---

11) Eusebio L. Rodrigues, "Saul Bellow's Henderson as Mankind and Messiah," *Renaissance* 35. 4(1983), p. 235.

12) Bradbury, p. 59.

고 혼돈상태의 분주함과 비인간적인 광증이 가득찬 곳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런 곳에서는 혼란된 자아상을 창조해 낼 뿐이라고 생각하며 “. . . in an age of madness, to expect to be untouched by madness is a form of madness. But the pursuit of sanity can be a form of madness, too” (p. 25).라고 말한다. 그래서 Henderson은 고의적인 문화적 신성모독의 행위로서 돼지를 기르게 되는 것이며, 많은 돈을 벌어들이면서도 자신이 동물만큼이나 타락한 존재라고 느낀다. 그는 활력이 있으나 목적이 없고 강력하나 무익한 힘을 갖고 있을 뿐이다. Bellow의 이전의 주인공들처럼 Henderson은 사회속에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우울과 분노를 초래한다는 것을 안다. 그리고 그가 사회와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가는 곳마다 문제를 일으키고 가족들에게 울화통을 터뜨리는 것도 바로 이런 분노에서 나오는 것이다.

Henderson은 부와 지위와 사랑을 모두 소유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충족되지 않는 공허감에 사로잡혀 실체를 알 수 없는 진실을 찾으려고 애쓴다. 그는 아버지 서재에서 자신이 기억하고 있는 “The forgiveness of sins is perpetual and righteousness first is not required” (p. 3).라는 인용문의 출처를 찾으려고 온갖 책들을 뒤적거리지만 결국 발견하게 되는 것은 그의 아버지가 bookmark로 사용했던 지폐들 뿐이다. 지혜를 추구하지만 오직 찾게 되는 것은 돈이라는 점에서 Henderson은 물질적 풍요의 시대에 살수록 더욱 더 정신적 가난을 경험할 수 밖에 없는 현대적 삶의 부조리를 나타내 준다고 하겠다.

정신적인 공허감에서 해방되기 위해 그리고 “I want”라는 내적 외침에 해답을 찾기위해 그는 아프리카로의 여행을 결심한다. 이러한 “I want”라는 내적 외침은 변화에 대한 갈망, 자신의 주체성 확립의 필요성, 그리고 불가피한 인간 조건을 초월하고자 하는 욕망으로 볼 수 있으며, 그의 아프리카여행은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시도인 것이다.

Henderson이 자아탐구의 여행을 떠나게 된 직접적인 동기는 “Miss Lenox went to the cemetery, and I went to Idlewild and took a plane” (p. 40).이라는 말에서 암시되는 것처럼 죽음과의 직면이다. 즉 자신의 집에 세들어살던 사람들이 버리고 간 고양이 문제로 들쭉부인 Lily와 대판 싸움을 벌이고 있는 동안 가정부 Miss Lenox가 죽어버린 것이다. Henderson은 그녀의 죽음에 대한 죄책감과 더불어 죽음으로부터 도피하고자 하는 강한 충동을 느낀다:

“Why do we allow ourselves? What are we doing? The last little room of dirt is waiting. Without windows. So for God’s sake make a move, Henderson, put forth effort. You, too, will die of this pestilence. Death will annihilate you and nothing will remain, and there will be nothing left but junk. Because nothing will have been and so nothing will be left. While something still *is-now!* For the sake of all, get out.”

(p. 40)



Henderson의 자기자신에 대한 회화적인 명령들이 그의 상황, 즉 인간으로서 죽음을 의식해야만 하는 절박감을 완전히 숨기지는 못한다. 현대의 인간들처럼, Henderson은 자신의 죽음은 물론 핵전쟁으로 인한 인류의 종말의 가능성에 대한 공포까지 느끼고 있다. 사실상, Bellow가 1963년의 어느 강좌에서 “Our condition of destructibility is ever-present in everyone’s mind”<sup>13)</sup>.라고 말하였듯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파멸의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이 늘 내재하고 있다고 하겠다. 모든 중요한 과업이나 대정복들이 완성된 20세

13) *Ibid.*, p. 236.

기 미국에서도, 모든 사람들에게 여전히 가장 큰 문제로 남아있는 것은 죽음과의 직면이라고 Henderson은 말한다. 그리고 그들세대의 운명은 세상밖으로 나가 삶의 지혜를 구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라고 믿는다:

All the major tasks and the big conquests were done before my time. That left the biggest problem of all, which was to encounter death. We've just got to do something about it. It isn't just me. Millions of Americans have gone forth since the war to redeem the present and discover the future. I can swear to you, Romilayu, there are guys exactly like me in India and in China and South America and all over the place. Just before I left home I saw an interview in the paper with a piano teacher from Muncie who became a Buddhist monk in Burma. You see, that's what I mean. I am a high-spirited kind of guy. And it's the destiny of my generation of Americans to go out in the world and try to find the wisdom of life. (pp. 276-77)

이제 55세의 Henderson은 죽음에 대한 강박관념과 더불어 자기 삶의 모든 부분에 대해 정신적 압박감을 느낀다. 예컨대 Henderson은 “my parents, my wives, my girls, my children, my farm, my animals, my habits, my money, my music lessons, my drunkenness, my prejudices, my brutality, my teeth, my face, my soul!” (p. 3) 등의 문제들이 그를 압박하듯이 사방 팔방에서 몰려들면 헤어날 수 없는 답답한 질식감에 사로 잡힌다. 이런 압박감에 항상 사로잡혀 있는 Henderson은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든 죽음과 관련된 이미지를 연상하게 된다. 예컨대, 그의 첫번째 아내 Frances와 이혼하기전에 Lily와 유럽여행 도중 프랑스 남부의 Banyules라는 해변으로 가서 해양박물관에 있는 문어를 보았을 때 Henderson은 평소와 다름없는 질식감을 느끼

며 죽음에 대한 의식을 하게 된다. 차가운 눈과 길게 늘어진 발로 느리게 움직이는 문어의 모습에서 Henderson은 우주의 냉혹한 진리, 즉 혼적없는 정적의 무시무시한 공포인 죽음을 느낄 뿐이다. 자신이 죽음이라는 진리를 향해 가고 있음을 인식하며 Henderson은 지금까지의 공허한 삶에서 벗어나 진정한 만족을 원한다면 그러한 진리를 수용할 수 밖에 없다고 느낀다:

It was twilight. I looked in at an octopus, and the creature seemed also to look at me and press its soft head to the glass, flat, the flesh becoming pale and granular - blanched, speckled. The eyes spoke to me coldly. But even more speaking, even more cold, was the soft head with its speckles, and the Brownian motion in those speckles, a cosmic coldness in which I felt I was dying. The tentacles throbbed and motioned through the glass, the bubbles sped upward, and I thought, "This is my last day. Death is giving me notice." (p. 19)

Harper는 Henderson이 겪고있는 고통의 정체가 의미있는 삶을 갈망하는 Bellow의 다른 주인공들과 유사한 존재론적 문제이며 생의 질서와 의미를 찾으려는 그는 결국 혼돈과 무의미를 직면할 뿐이라고 설명한다:

Henderson is caught in the familiar existential dilemma of Bellow's heroes: yearning for order and meaning in his life, he finds only chaos and meaninglessness. He feels helpless, trapped by two inescapable facts of life. The first, as we have seen, is death. The second is man's inability to know reality when he sees it.<sup>14)</sup>

---

14) Howard M. Harper Jr., *Desperate Faith* (Chapel Hill: Univ. of North Carolina Press, 1974), p. 41.

즉 Henderson은 피할 수 없는 두 가지 사실과 마주치게 되는데, 그 하나는 죽음이며, 또 하나는 인간의 리얼리티 파악의 불능이라는 것이다. Harper는 사실의 세계는 고정되어 있지만 리얼리티는 시간과 환경과 개성의 소산이므로 수시로 변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그러기에 Henderson의 리얼리티와 Lily의 리얼리티는 반드시 같지는 않다는 것이다.

리얼리티는 항상 분명하게 붙잡을 수 없는 것이기에 사람은 세계로부터 남으로부터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서까지 소외됨을 느낀다. 사람은 죽을 때까지 인생항로에서 다른 사람에게는 남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Nobody truly occupies a station in life any more.” 혹은 “There are displaced person everywhere” (p. 34).라는 Henderson의 말에서 엿볼 수 있는 것처럼 현대사회의 유동성은 이런 소외감을 더해 줄 뿐이다.

Henderson은 이런 소외감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한다. 그리고 그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짓누르고 있는 내적 갈망의 목소리를 잠재우고자 한다. 그리하여 Henderson은 문명세계에서는 찾을 수 없는 본질적인 진실을 추구하고 자신의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기 위해 아프리카로 떠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Henderson이 아프리카여행을 떠나게 된 동기는 물질적인 풍요로움과는 반대급부적인 정신적 공허감에서 오는 괴로움, 죽음을 수용할 수 없는데 따른 두려움, 리얼리티 파악의 불능, 광적인 사회에서 느끼게 되는 소외감 등에서 벗어나고자하는 절박한 몸부림에서 비롯된다고 하겠다.

### Ⅲ. 실재(Reality)의 인식과 수용: 여행의 과정

Hendersond의 마음 속에서 끊임없이 들려오는 “I want, I want, I want.” 라는 외침소리는 현대사회의 혼돈과 소외속에서 실존의 해답을 찾으려고 하는 내면적 욕구로 볼 수가 있다. 그 자신은 이 외침소리의 정체를 알 수가 없어 온갖 노력을 다 해보지만, 그 소리는 그치지를 않는 것이다. 여러가지로 시험한 치료법 가운데 하나가 바이올린이었다. 어느날 고방을 뒤지다가 먼지가 수북이 쌓인, 아버지가 사용하시던 바이올린 상자를 발견한다. 그는 내적 갈등을 잠재우고 마음의 평정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아버지와의 교감을 이루기 위해서 바이올린을 켜지만 불협화음만 낼 뿐이다. M. Gilbert Porter는 정신적인 질서를 얻고자 연주하는 바이올린에서 울리는 불협화음은 Henderson의 정신적인 상태를 객관적 상관물화 시킨 것이라고 말한다:

The many conflicts in Henderson's life described in this section are accentuated by the discordant “music” of Henderson's violin. The tortured sounds he produces serve as a musical objective correlative for the condition of his soul.<sup>15)</sup>

Henderson을 괴롭히고 있는 문제는 두가지, 즉 죽음의 문제와 인간의 리얼리티파악의 불능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는 Miss Lenox의 죽음을 계기로 하여 아프리카로 떠난다. 작가가 무대를 아프리카로 잡은 것은 문

15) M. Gilbert Porter, *Whence the Power?: The Artistry and Humanity of Saul Bellow* (Columbia: Univ. of Missouri Press, 1974), p. 131.

명에서의 탈출을 시도한 Henderson으로 하여금 가장 원시적인 형태에서 여러 가지 근본문제와 대결하게 하기 위한 설정이라고 볼 수 있다. Henderson은 공중에서 바라본 아프리카로부터 역시 인류의 근원지라는 인상을 받으며, 여기서라면 새로운 출발도 가능 할 것이라는 느낌을 갖는다:

Africa reached my feelings right away even in the air, from which it looked like the ancient bed of mankind. . . . I felt I might have a chance here. (pp. 42-43)

아프리카에서 Henderson은 인생의 의미를 찾는데 도움을 준 두 부족, Arnewi와 Wariri를 만난다. 사실상 이 소설의 의미는 이 두 부족과 그 지도자들에 대한 상징적인 이해로 부터 나온다. 그 두 부족들이 암시하고 있는 사랑과 미움(공격성)이라는 단순한 대조는 그들 각각의 지도자, 즉 Arnewi의 여왕 Willatale과 Wariri의 왕 Dahfu가 그들 부족의 한계를 초월하고 완전히 통합된 인간형을 구현하고 있다는데서 복잡성을 띤다.<sup>16)</sup>

Henderson이 처음 만난 부족 Arnewi는 유약하고 유순하며 애정이 있으며 그러므로 불행하다. 그들은 그들의 운명적 환경(가뭄, 마실물을 오염시키고 있는 개구리들)과 고통을 피동적으로 받아들일뿐, 자신들을 더 나은 상태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어떤 공격적인 행동을 취할 능력이 없다. 그러므로 Henderson은 열정과 선의로 가득 차서 Arnewi족을 위하여 도움이 되는 뭔가를 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자기 인식의 부족 때문에 그의 충동적인 행동들은 이익이 되기보다는 더욱 파괴적이 되어버린다. 그가 만든 폭탄이 개구리 뿐만 아니라 물통까지 파괴시켜버린 사건은 현대인의 기술적 발명의 재주

---

16) Markos, p. 196.

가 오히려 자신을 향해 발사되는 우화라고 보아진다.

Arnewi족과 Wariri족은 원래 같은 부족이었는데 행운의 문제(luck question)로 의견이 갈라져서 둘이 되었다고 한다. Wariri말로는 Arnewi가 “불행한 사람들”이라는 뜻이고 Wariri는 “행운의 부족”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p. 166). Arnewi족과는 달리 Wariri족은 공격적이고 적대적이고 잔인하며 그 이름에서 느껴지는 것처럼 호전적이다. 그리고 Arnewi족이 감정에 의해 지배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Wariri족은 그들의 운명을 의식적으로 창조하는 것에 기꺼이 몰두한다. 그러나 Wariri족은 어떤면에서 Henderson이 도망쳐왔던 문명세계보다 훨씬 더 강하게 죽음의 이미지와 관련되어 있다. Henderson이 처음 도착한 날 오두막에 있던 시체(그 시체는 이전의 Rain King의 시체임이 나중에 밝혀진다.)라든가 마을 어귀에 매달려 있던 시체들이 증거하듯이 그들은 공격적인 본능 뿐만 아니라 죽음의 본능까지도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이다.

죽음을 회피해 아프리카로 온 그는 더많은 죽음을 목격하는 역설적(逆說的)인 상황에 부딪히게 된다. 예컨대 Arnewi족 물통속의 개구리의 죽음, 처형된 Rain King의 시체, 기우제에서 여사제와 왕 Dahfu가 묘기를 부리던 Dahfu의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유골, 음모로 인한 Dahfu의 죽음, 자신의 생명에 대한 위협등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죽음과의 직면을 통해 Henderson의 자아인식은 결정적인 단계에 접어들게 된다.

Henderson이 Arnewi의 여왕 Willatale에게서 처음 느낀 몇가지중 하나는 그녀에게서 발산되는 “good nature” (p. 71)이다. 그녀의 인사는 자애로움으로 가득차 있다. 그는 그녀의 가슴에서 발산되는 온기와함께 굉장한 중압감을 느끼며, 그녀의 심장의 고요한 맥동이 그대로 전해져오고, 그 맥동이 지구의 자전만큼이나 규칙적임을 느끼면서, 마치 삶의 신비를 손에 만지는 듯한

놀라움을 경험한다(p. 72). 여왕 Willatale은 거대하고, 무겁고, 견고하며, 평정의 화신이라는 느낌을 준다. 그러나 여왕의 외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특징은 여왕의 몸에 두르고 있던 사자의 가죽이다. 이것은 분명히 Dahfu가 궁전 밑의 우리속에 애완용으로 기르고 있던 사자와 어떤 연관이 있음에 틀림이 없다. 여왕이 두르고 있는 것이 다만 죽은 사자의 가죽일 뿐이라는 사실은 동물적 본성이 그녀의 심리적 기질에서는 부차적인 역할 밖에 하지 않음을 시사해 준다고 하겠다.<sup>17)</sup>

Willatlale은 여성인 동시에 남성으로 아내와 남편들을 거느리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그녀가 대부분의 인간들에게 고통과 번민을 야기시키는 성적인 제약을 넘어섰고, 그럼으로써 그녀는 본질적으로 완벽하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다. 그녀는 불가능한 Ideal의 상징이며, 불만족스러운 욕구가 없는 완전히 통합된 인격을 나타내며, 그 상태에서는 에너지가 낭비되거나 막힘이 없고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공격적이 되지 않는다:

. . . there was no anxious care in her, and she was sustained. Why, nothing bad happened! On the contrary, it all seemed good! (p. 79)

그가 어떤 사람이며, 어디에서 온 사람인가라는 Willatale의 질문에 Henderson은 지금까지 자신이 고통스럽게 생각해온 근본적인 문제, 즉 “Who—who was I? A millionaire wanderer and wayfarer. A brutal and violent man driven into the world. A man who fled his own country, settled by his forefathers. A fellow whose heart said, *I want, I want, I*

---

17) *Ibid.*, p. 196.



want. Who played the violin in despair, seeking the voice of angels. Who had to burst the spirit's sleep" (p. 76).등을 생각하며 자신에 대하여 설명할 수 없음을 난감해 한다. 그는 Willatale에게 삶의 지혜에 대하여 가르쳐달라고 하며, 자신의 영혼을 괴롭히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겪어야 하는 여러가지 질병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토로한다:

"Oh, it's miserable to be human. You get such queer diseases. Just because you're human and for no other reason. Before you know it, as the years go by, you're just like other people you have seen, with all those peculiar human ailments. Just another vehicle for temper and vanity and rashness and all the rest. Who wants it? Who needs it? These things occupy the place where a man's soul should be. But as long as she has started I want her to read me the whole indictment. I can fill her in on a lot of counts, though I don't think I would have to. She seems to know. Lust, rage, and all the rest of it. A regular bargain basement of deformities. (p. 83)



Henderson의 불평은 진실하면서도 회극적이기까지 하다. 이는 계속되는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살아야만 하는 인간실존의 부조리를 설명해 준다고 하겠다. 허영, 무분별, 욕구, 분노처럼 비정상적인 것들이 집합되어있는 특매장으로서 인간본성에 대한 고발행위는 이미 프로이드 심리학이 20세기 인간에게 인간의 무의식 세계와 내적 존재에 대하여 회화시켜 놓고 있다.<sup>18)</sup>

여왕 Willatale은 "You are very sore . . . Your heart is barking with frenzy and suffering" (p. 82).이라고 말하면서 Henderson의 상태에 대해 진단을 내리고 "삶의 의지와 수용의 원리"(grun-tu-molani)<sup>19)</sup>라는 처방을 내준

18) Rodrigues, p. 236.

다. Itelo는 신중하게 “You want to live. Grun-tu-molani. Man want to live” (p. 85).라고 여왕이 의미하는 바를 통역한다. 여왕은 Henderson이 인류 그 자체라는 것을 인정하고 치료의 가능성이 달려있는 근본적인 진리, 즉 인간은 살기를 원해야한다는 것을 모두에게 받아들이도록 한다. 이런 진리를 터득함으로써 Henderson은 코믹한 광기의 상태에까지 이르게 된다:

“Yes, yes, yes! Molani. Me molani. She sees that? God will reward her tell her, for saying it to me. I’ll reward her myself. I’ll annihilate and blast those frogs clear out of that cistern, sky-high, they’ll wish they had never come down from the mountains to bother you. Not only I molani for myself, but for everybody. I could not bear how sad things have become in the world and so I set out because of this molani. (p. 85)

결국 Henderson은 죽음에 직면하기가 두려워 도피의 수단으로 아프리카 여행을 떠난 것이지만, 그 이면에는 오히려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다 삶에 대한 열정이 더 강한 것으로 드러나며, 이는 삶의 목적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참된 자아인식에 대한 바람의 발로인 것이다.

Henderson은 여왕 Willatale이 그를 환대하고 “삶의 의지와 수용의 원리”를 그에게 밝혀준 보답으로 물통속의 개구리를 처치하여 그 부족을 가뭄의 고통으로부터 구해주고자 결심한다. 자신이 일을 벌일때면 늘 근본적이고 순수한 동기에서 출발하지만 어찌된 셈인지 중간에서 일이 꼭 그르치게 된다는 불안감은 있었지만, 그는 그 부족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하는 열망

19) grun-tu-molani라는 말은 “Man want to live.”라는 의미의 Arnewi부족의 말로써, 삶의 목적이란 모든 고통이나 기쁨, 좌절, 희망등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 즉 인생을 주어진 그대로 수용한다는 삶의 철학이다.

에 사로잡혀 폭탄을 만든다. 그리고 마침내 물통속에 폭탄을 터뜨리지만 개구리와 더불어 물통까지도 폭발해 버림으로써 오히려 그 부족을 더욱 곤경에 처하게 하고 만다.

Arnewi에 있을 때, 그들의 관습에 따라 Henderson은 왕자인 Itelo와 씨름을 벌이는데, 넘어져 통증을 느끼는 순간 “I do remember well the hour which burst my spirit’s sleep” (p. 67).라는 말을 떠올린다. 정신의 변화나 새로운 삶의 탄생은 고통속에서 얻어진다는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그리고 Willatale의 특별한 호의로 살전 여왕의 배에 키스하도록 허락 받았을 때, 그는 그로테스크한 “모태로의 회귀”(return to the womb)<sup>20</sup>를 경험하게 되며, 이 순간이 바로 정신의 잠으로부터 깨어난 시간( hour that burst the spirit’s sleep)임을 인식하게 된다. 이러한 사건은 그가 새로운 인간으로서의 재생의 가능성을 시사해주는 것이라 하겠다. 사실상 Henderson은 Willatale에게서 삶의 지혜를 배우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 재생을 경험하게 된다. 그러나 그 과정도 폭탄제조라는 현대적 기술에 의존함으로써 실패로 끝나고 만다.

Arnewi의 여왕 Willatale에게서 완전한 인간의 모형을 보았던 것처럼, Henderson은 Wariri의 왕 Dahfu를 만났을 때도 “He seemed all ease, and I all limitation. He was extented floating; I was contracted and cramped” (p. 160).라고 느끼며, Dahfu의 우월성에 압도된다. 그는 Dahfu를 Be-er로, 자신을 Becoming의 상태로 보고, Becoming의 사람들은 언제나 불안한 상태에 있음을 인식한다. 그리고 자신도 Becoming의 상태에서 벗어나고 정신의 잠을 깨어 Being의 상태가 되기를 열망한다:

---

20) Robert Detweiler, “Patterns of Rebirth in *Henderson the Rain King*,” *Modern Fiction Studies* 12. 4(1966-67), p. 408.

I might be added, as it entered my mind to do, that some people found satisfaction in *being* (Walt Whitman: "Enough to merely be! Enough to breathe! Joy! Joy! All over joy!"). *Being*. Others were taken up with *becoming*. Being people have all the breaks. Becoming people are very unlucky, always in a tizzy. The Becoming people are always having to make explanations or offer justifications to the Being people. While the Being people provoke these explanations. I sincerely feel that this is something everyone should understand about me. Now Willatale, the queen of the Arnewi, and principal woman of Bittahness, was a Be-er if there ever was one. And at present King Dahfu. And if I had really been capable of the alert consciousness which it required I would have confessed that Becoming was beginning to come out of my ears. Enough! Enough! Time to have Become. Time to Be! Burst the spirit's sleep. Wake up! (p. 160)

Henderson은 기우제에 참석하여, Dahfu가 여사제와 해골을 가지고 유희를 벌이는 장면을 보면서 그의 묘기에 찬사를 보내자, Dahfu는 언젠가 자신의 해골도 그와 같이 유희에 썩여질 것이라고 다음과 같이 말한다:

"Some day the ribbons will be tied through here." With two fingers he pointed to his eyes. "My own skull will get the air." He made a gesture of soaring, and said, "Flying."

(p. 176)

이처럼 Dahfu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삶의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신을 나타내는 우상들<sup>21)</sup>을 옮기는 차례가 되어, Wariri에서 가장 힘 센 장사인 Turombo가 마지막 구름의 여신 Mummah<sup>22)</sup>를 옮기려고 시도하지만 실패한다. 그러자 Henderson은 자신이 그들을 위해 무엇인가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불꽃처럼 강하게 일어난다. 그리고 그러한 느낌은 자기의 삶을 어느 일정한 깊이만큼까지 끌어 올리려는 불타는 열망으로 발전한다. 그는 Dahfu에게 “I am very restless. But the fact of the matter is I just couldn't continue as I was, where I was. Something had to be done” (p. 188).라고 말한다. 그는 “I would genuinely like to be of service, as I have certain capacities which ought to be put to definite use” (p. 188).라고 Dahfu에게 말하며 그의 가족에게 항상 존재해온, 더 나아가서는 인간 구성원들에게 자리잡고 있는 헌신(희생)의 관념에 사로잡힌다. 왕의 태도가 나타내는 미묘한 여운을 가려낼 심리적인 여유도 없이 그는 타는 듯한 갈망과 강력한 야심에 사로잡혀, 이 일을 하므로써 수년래의 미결상태의 일들--*I want, I want, I want, and Lily, and the grun-tu-molani and the little colored kid brought home by my daughter from Danbury and the cat I had tried to destroy and the fate of Miss Lenox and the teeth and fiddle and the frogs in the cistern and all the rest of it* (p. 189).--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Henderson은 <되어가는 자>이므로 <완성된 자>가 되기 위하여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해야하는 사명감을 느낀다. Henderson이 올 것

21) 이들은 공기와 산과 불과 초목과 가축과 행운과 병과 구름과 탄생과 죽음을 다스리는 자들이었다.

22) Mummah는 그부족의 신들 중에서 가장 무겁고 또한 비를 내리게 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신으로서, 그 여신을 들어올리는 자는 Wariri의 Rain King이 되며 다산과 비옥의 의식을 관장하고 부족의 공식적인 행사에 참가한다. 그리고 왕이 성년의 후계자가 없는 상태로 죽으면 왕의 후계자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다음의 기우제에서 다시 Mummah를 들어올리는데 실패하면 목숨을 잃게 되므로 부족민들은 힘이 있다하더라도 Mummah를 들어올리기를 꺼린다.

이며 때맞춰서 오리라는 것을 알고 있는 듯한 주술사 Bunam의 태도에 고무되어(p. 190), 그는 순수한 행위를 하기 위하여 과학의 힘이 아닌 자신의 엄청난 천부적인 인간적 힘을 사용한다. 그는 마침내 Mummah를 들어올려 다른 신들이 있는 새로운 장소에 옮겨 놓는데 성공한다.

이러한 공훈으로 해서 Wariri부족민들 사이에서 열렬한 찬사가 터져나온다. 그들에게는 Henderson이 가뭄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해준 구세주인 셈이다. 그는 황야의 무력한 Fisher King이 아니라, 이 목적을 위해 Wariri 땅에 보내진 Sungo, 즉 비와 비옥의 왕인 것이다(p. 197). 그 공훈은 또한 Henderson 자신의 내부에서도 분출을 촉발한다. 그는 그의 묘한 느낌을 표현하고자 종교적인 용어들을 사용한다. 그의 정신은 깨어나 삶을 새로이 맞아들였고 그의 내부에서 “삶의 의지와 수용의 원리”가 움직이는 것을 느낀다:

I was so gladdened by what I had done that my whole body was filled with soft heat, with soft and sacred light. . . My spirit was awake and it welcomed life anew. Damn the whole thing! Life anew! I was still alive and kicking and I had the old grun-tu-molani. (pp. 192-93)

더더욱 의미심장한 것은 그가 땀으로 인하여 성유를 바르는 의식을 경험한다는 것이다. 성서에서 성유를 바르는 행위는 헌신을 상징한다. 특히 이는 문자 그대로 성별을 받은자 (the anointed one, 구세주)를 의미하는 용어인 Messiah에 적용된다.<sup>23)</sup>

20세기의 메시아가 될 운명이 지워진 Henderson은 자기헌신의 행위를 함

---

23) Rodrigues, p. 240.

으로써 그 과정을 계속 진행시키게 된다. 기우제가 끝나고 나서 이 Sungo 메시아의 주위를 Wariri 여성들이 도는 사이에 이상한 기도문들이 그의 가슴 속에서 터져 나온다:

And all my heart I yelled, "Mercy, have mercy!" And after that I yelled, "No, no, justice!" And after that I changed my mind and cried, "No, no, truth, truth!" And then, "Thy will be done! Not my will, but Thy will!" This pitiful rude man, this poor stumbling bully, lifting up his call to heaven for truth. Do you hear that? (p. 199)

이 세상을 현재의 모습으로 만든 것은 자기자신(p. 123)이라는 Henderson의 이기적인 생각이 이 기도문에서 이타적인 방향으로 전환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rnewi의 여왕 Willatale이 노년, 잃어버린 치아, 백내장의 눈등 육체적 고통을 초월한 증거를 나타내 주는 반면, Dahfu는 인간의 삶에 의해 어떤 정신적 손상도 입지 않은 초월적 모습을 보여준다. Dahfu는 Arnewi와 그들의 "삶의 의지와 수용의 원리"의 개념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그는 그 원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한다. 그 자신의 철학은 그 이상의 어떤 것을 요구한다. 바로 이 시점에서 그는 Henderson을 사자의 우리로 데리고 간다. 암사자 Atti가 있는 사자굴로 들어가는 통로에서 그 통로의 광선때문에 생긴 희뿌연 물처럼 평평히 펼쳐있는 공기와 벽면을 보았을 때, Henderson은 문득 프랑스 해변의 해양박물관에서 보았던 문어의 모습이 떠오른다. 문어를 보았을 때 죽음을 연상했던 것을 지금 기억해 냄으로서 Henderson은 사자와 Dahfu를 연관시키게 되는 것이다. 그 문어에 대한 기억의 재생은

Henderson이 그 이전의 자기 중심적인 이기주의에서 Dahfu를 염려하는 이타주의로 변화되는 과정을 나타내 준다.

Dahfu는 인간정신의 모든 가능성에 대한 그의 믿음을 이야기하며, 욕구가 강한 사람은 언제나 현실을 의심했으니, 그 의심을 버리고 자신을 신뢰하라고 말한다:

“. . . Men of most powerful appetite have always been the ones to doubt reality the most. Those who could not bear that hopes should turn to misery, and loves to hatreds and deaths and silences, and so on. The mind has a right to its reasonable doubts, and with every short life it awakens and sees and understands what so many other minds of equally short life span have left behind. It is natural to refuse belief that so many small spans should have made so glorious one large thing. That human creatures by pondering should be *correct*. This is what makes a fellow gasp.” (p. 232)

Dahfu는 혁명적인 심리학적 이론을 가지고 있으며, 육체가 정신에 영향을 주고 정신이 육체에 영향을 주며 이렇게 양면으로 작용한다는 그의 생각에 의하면 이 과정은 완전히 역학적이고 동적이다. 또한 그는 인간은 자신의 생리적 형상을 창조할 수도 있고 변화시킬 수도 있다고 믿는다:

What he was engrossed by was a belief in the transformation of human material, that you could work either way, either from the rind to the core or from the core to the rind; the flesh influencing the mind, the mind influencing the flesh, back again to the mind, back once more to the flesh. . . For him it was not enough that there might be disorders of the body that originated in the brain. *Everything* originated there. “Although I do not wish to



reduce the stature of our discussion,” he said, “yet for the sake of example the pimple on a lady’s nose may be her own idea, accomplished by a conversion at the solemn command of her psyche; even more fundamentally the nose itself, though part hereditary, is part also her own idea.”

(pp. 236-37)

마침내 Dahfu는 Henderson을 사자인 Atti와 대면시킨다. 사자와의 만남은 Henderson에게 놀랍고도 예기치 못한 방법으로 영향을 미친다. Atti로 인한 충격은 온갖 고난이 새겨진 그의 얼굴에 드러난다. 그들의 첫 만남에서, Henderson의 얼굴은 “one huge mass of acceptance directed toward fate” (p. 223)가 된다. Atti의 눈은 비인간적인 분노의 맑은 눈동자로(p. 261) 그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는 그 눈동자들을 피할 수가 없다. 그 눈동자는 이 회피자에게 세상의 분노를 직시해야 한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이것은 비인간적인 분노이지 개인적으로 그를 향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인간은 인간존재의 공포를 두려워할게 아니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sup>24)</sup>

Dahfu는 사자의 위대한 가치, 즉 이 사자는 무엇보다도 피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설명해 준다. 이것은 바로 Henderson에게 필요한 진리인 것이다. Dahfu는 죽음도 피하지 않는 사자의 위대한 가치를 설명하며, Atti가 Henderson를 변화시킬 것이고, 현실을 피하기 보다는 직시하도록 해 줄 것이라고 말한다:

You ask, what can she do for you? Many things. First she is unavoidable. Test it, and you will find she is unavoidable. And this is what you need, as you are an avoider. Oh, you have accomplished momentous avoidances. But she will

---

24) *Ibid.*, p. 241.

change that. She will make consciousness to shine. She will  
burnish you. She will force the present moment upon you.  
(p. 260)

Dahfu에 따르면, 의미있는 삶이란 현재의 삶을 충실하게 사는 것이며 그 순간의 강도와 의미를 고양시키기 위하여 정신의 모든 힘을 사용하는 것이다. 소심한 사람들에게는 그런 과정이 없다. Dahfu는 “More of fear than of any other thing has been created.”라고 말하며, 이렇게 심하게 만연되어 있는 인간적 두려움의 감정들을 극복하는 어려움을 인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정의 정복은 어떤 댓가를 치른다 하더라도(그것이 죽음이라 하여도)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sup>25)</sup> 따라서 피할 수 없는 존재인 사자와 직면함으로써 Henderson이 회피하고자 하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조차도 극복할 수 있다고 한다. 사실상 Dahfu는 죽음을 늘 가까이 하면서도 죽음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않고 너무나 당연한 사실로 받아들인다.

미의식(美意識)의 일부는 공포의 극복에서 우러나오고, 공포가 물러가면 그 자리에 아름다움이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고 Dahfu는 말한다. 그리고 Henderson의 의식은 자아를 고립화하려는 경향이 있으므로 자신의 치료를 받고 변화하고 싶으면 자신을 버리고 사자처럼 되어보라고 권한다. Henderson은 사자가 무서웠지만 Dahfu와의 관계가 멀어질까 두려워 사자의 울음소리를 흉내낸다. 그리고 가슴속에서 모든 슬픔과 영혼의 소리를 토해냄으로써 비로소 그는 자기 마음속의 외침소리의 뜻을 깨닫는다. 모든 것을 토해내고도 남아있는 것은 그의 인간적인 동경심이며, 이 인간적인 동경심이 바로 “I want, I want, I want.”란 외침의 뜻이었고, 이 동경심은 Henderson의 생활환경에서는 채워지지 못하였던 것이다:

---

25) Harper, p. 48.

And so I was the beast. I gave myself to it, and all my sorrow came out in the roaring. My lungs supplied the air but the note came from my soul. The roaring scalded my throat and hurt the corners of my mouth and presently I filled the den like a bass organ pipe. This was where my heart had sent me, with its clamor. This is where I ended up. Oh, Nebuchadnezzar! How well I understand that prophecy of Daniel. For I had claws, and hair, and some teeth, and I was bursting with hot noise, but when all this had come forth, there was still a remainder. That last thing of all was my human longing. (p. 267)

Henderson이 Dahfu로 부터 배우게 되는 귀중한 교훈은 죽음과 고통의 의미이다. Henderson의 아프리카여행은 Miss Lenox의 죽음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피할 수 없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의 도피였다. 사자의 우리 속에서 사자와 마주하는 것을 배우는 과정에서 Henderson은 또한 죽음과 직면하는 것을 배운다. 그러나 그것은 두려움없이 죽음과 직면하는 것이 아니라 문명인들이 이용하는 수없이 많은 회피라는 도움이 없이 죽음과 직면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sup>26)</sup>

Henderson으로 하여금 죽음과 직면하는 것을 도와줌으로써, Dahfu는 Henderson이 Becoming의 불안정한 상태에서 Being의 안정된 상태로 변화되기를 희망한다. Dahfu는 Henderson에게 “Men of most powerful appetite have always been the ones to doubt reality the most” (p. 232).라고 말하고, Henderson을 “avoider”라고 하며, 그의 회피적인 태도를 질책한다. 자아를 고립화시키는 Henderson의 태도로는 변화를 가져올 수 없으므로 새로운

---

26) *Ibid.*, p. 48.

습관을 만들어야함을 역설한다. 사자는 피할 수 없는 존재이므로 피하지 않고 수용한다면 Henderson의 정신적 결함을 치료해 줄 것이라고 말하는 그의 견해는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여왕 Willatale도 Henderson에게 “. . . the world is strange to a child” (p. 84).라고 말하면서 그와 비슷한 진단을 내렸다. 이 말은 아이들에게 세상은 낯선 것일지는 모르지만 어린아이는 어른처럼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어른들이 세상을 무서워하는 것은 죽음의 공포때문이다. Henderson은 이러한 진리를 인식하고, 자신이 그동안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삶으로부터 소외되어왔음을 인정한다. Henderson의 자기회피와 불안정한 분투의 밑바닥에는 그의 동물적 속성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왔다. 생물학적인 요소인 이러한 속성을 인정한다는 것은 의지와 욕망에 대한 한계를 받아들이고 죽음과 야만성에 대한 가능성을 인정해야함을 의미한다.<sup>27)</sup>

Henderson에게 그 자신의 속성을 충분히 의식하도록 일깨워주기 위하여 Dahfu는 궁전 밑의 사자우리 속에서 실험을 계속 수행한다. 네발로 서서 사자의 자세를 취하고, 사자처럼 행동하고, 사자처럼 소리를 내라고 말한다. 그럼으로써 Dahfu는 Henderson에게 육체를 통하여 정신을, 정신을 통하여 육체를 감화시키려고 애쓴다. 그러나 그 실험은 성공하지 못한다. 그것은 아마도 실험을 뒷받침하는 이론이 불충분했거나 아니면 Henderson이 사자에 의해 영향을 받기에 너무 거칠기 때문일 것이다. Amewi족과 있을 때 Henderson은 자신의 정신이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느끼기 시작했었다. 그러나 “I feel that old self more than ever, like a Galapagos turtle. On my back” (p. 275).이라고 말하듯이 Dahfu와 사자 Atti에게서는 그런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Henderson은 Dahfu로부터

---

27) Markos, p. 200.

선택된 고결한 자아개념의 방향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생각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낡은 자아를 극복하고 새로운 기준을 채택하고 싶어한다:

. . . I was willing to overcome my old self; yes, to do that a man had to adopt some new standard; he must even force himself into a part; maybe he must deceive himself a while, until it begins to take . . . (pp. 297-98)

그렇기는 하지만 Henderson이 의식적으로 변화되고자 원했던 방향은 동물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을 향한 것이다. 동물은 자연의 축복을 그대로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인간에게 요구되어있는 것은 다른 무엇, 즉 고결한 인간성을 완성하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But then what could an animal do for me? In the last analysis? Really? A beast of prey? Even supposing that an animal enjoys a natural blessing? We had our share of this creature-blessing until infancy ended. But now aren't we required to complete something else-project number two-the second blessing? I couldn't tell such things to the king, he was so stuck on lions. (p. 288)

Henderson은 그의 본능적인 속성을 소중히 여기게 되지만 그것은 인간이 겪고 지나야 할 단계라는 것을 깨닫는다. 그리고 그는 Dahfu의 실험에 참여했던 자신의 행동이 생각없이 행동했던 일생의 큰 실수들 중의 하나로 보기 시작하며, Willatale 밑에서 “삶의 의지와 수용의 원리”나 배우면서 시간을 보냈더라면 더 나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p. 288). 그러나 사자 실험이 그와 Dahfu와의 우정을 굳혀주었으므로 그보다 더한 것이라도 했을 것이라는 것

을 인정한다.

그렇기는 하지만 사자가 Henderson에게 영향을 주기는 한다. 궁전 밑의 우리 속에서 기르던 Atti가 아니라, Dahfu가 잡아야하는 그의 아버지의 현신인 Gmilo가 Henderson을 변화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다. Dahfu와 함께 Hopo에서 사자가 다가오기를 기다릴 때 그에게 변화가 일어난다. 사자의 으르렁거림은 바로 “의식의 문”을 강타하고, Henderson은 사자의 쨍그린 주름살 속에서 “the darkness of muder” (pp. 306-307)를 본다. 맹수의 으르렁소리는 실로 죽음의 목소리였다(p. 307). 사자의 포효는 Henderson이 리얼리티에 대하여 갖고 있던 모든 환상을 파괴시킨다:

But oh, unreality! Unreality, unreality! That has been my scheme for a troubled but eternal life. But now I was blasted away from this practice by the throat of the lion. His voice was like a blow at the back of my head. (p. 307)

Dahfu와 사자를 기다리면서, Henderson은 자연세계에 속하는 죽음과 야만성의 현실(Reality)를 완전히 깨닫는다.<sup>28)</sup> 그리고 Dahfu의 최후의 장면에서 Henderson은 마침내 공포심을 극복하는 데 성공하고 있다. 결국 사람들이 피하려고 하는 고통과 죽음은 잠든 마음을 일깨워 주는 유일한 각성제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Henderson은 고통과 시간의 흐름 그리고 지복과 영원함의 단계를 인식하며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한다:

Maybe time was invented so that misery might have an end. So that it shouldn't last forever? There may be something in this. And bliss, just the opposite, is eternal?

---

28) *Ibid.*, p. 201.

There is no time in bliss. All the clocks were thrown out of heaven. (p. 314)

Henderson은 Dahfu의 죽음에서 자신의 죽음을 경험하고 그에게서 자신의 모습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인간존재의 본질적인 모습을 발견한다. 그는 이제 자신의 이기적인 자아의 껍질을 벗고 충동적이 아닌 진지한 자세로 자신의 봉사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함으로써 공동체로의 소속감을 느끼게 된다.

Dahfu가 강조한 자연, 상상력의 세계, 그리고 고결한 인간성에 대한 믿음은 부조리한 사회에서 인간을 긍정하려는 Bellow의 휴머니즘의 발로로 볼 수 있다. 인간의 한계성에 도전하는 Henderson에게도 Bellow의 따뜻한 인간애가 느껴진다. 그러한 한계의 수용은 자기초월이 되며 그럼으로써 자기중심적인 자아로 부터 자유로워진다. Henderson은 이제 무한한 인간의 잠재력을 확신할 수 있게 되었으며 그 확신을 통해서 그는 새로운 인간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게 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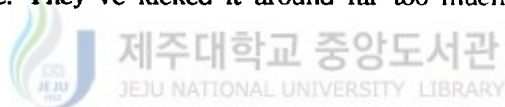


#### IV. 실존적 자아인식과 재생: 여행의 결과

*Henderson the Rain King*의 중심적인 내용은 주인공 Henderson의 진리에 대한 추구 혹은 자아인식에의 갈망에 있다고 하겠다. 이 작품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Henderson이 아프리카로 여행을 떠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여행의 이유는 오로지 한가지, 즉 마음의 고통을 완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작품속의 여러 곳에 그가 이러한 고통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부분이 산재되어 있다:

“Life has worked me over. It wasn’t just the war, either. . .  
. I got a bad wound, you know. But the shots of life . . .”  
I gave myself a bang on the breast. “Right here!” (p. 217)

I have a punchy heart. It’s had more beating than it  
can take. They’ve kicked it around far too much. (p. 315)



Henderson이 늘 불평하고 있는 고통은 그만의 개인적인 고통이라기 보다는 현대의 미국사회 혹은 더 나아가 인류전체가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위기의식이라고 하겠다.

Bellow는 이 작품에서 orbic romance의 형식을 빌어 주인공 Henderson을 등장시킴으로써, 그가 행하는 역할의 다양한 단계들을 해체하고 조화시킬 수가 있었다.<sup>29)</sup> 우선 Henderson은 잠든 영혼을 깨고자 아프리카로 향하는, 시간 및 장소에 뿌리를 두고 있는 실제인간이다. 그는 55세로서, 명성과 재산

29) Rodrigues, p. 235.



을 소유하고 있으며, Connecticut주의 Danbury에 살고 있고, 두 아내와 다섯 아이들이 있다. 그리고 2차 대전에서의 전투경험을 가지고 있다. Henderson은 또한 과학기술에 완전히 사로잡혀버린 현대 도시인의 모습을 대변해 준다. 그는 삶을 살아가는 최고의 방법을 배우고자 구도의 길에 들어서게 된다. 또다른 면에서 볼 때, 그는 거대한 육체, 재산, 명성 등의 모든 물질적인 것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정신적인 고갈상태를 겪고있는 오늘날의 미국인상을 집약적으로 나타낸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다:

Over-sized, over-resourced, giant, rich, and miserable, he suggests America. Fearful of death, uncertain of his own identity, a stranger to him self, he suggests contemporary man.<sup>30)</sup>

최상의 측면에서 보면, Henderson은 원초적 인류의 모습을 상징하는 아프리카에서 자신의 동료들을 위해 희망과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복귀하는 예사롭지 않은 위대한 메시아인 것이다.<sup>31)</sup>

Henderson의 변화과정은 주로 동물적인 이미지로 묘사되어있다. 하등동물에서 고등동물로, 즉 돼지의 속성에서 사자 속성으로 일종의 유사하고 연쇄적인 변화를 거쳐, 영웅으로의 점진적인 변화상태를 겪게 된다. Henderson의 재생의 중요한 단계는 네마리의 동물들, 즉 돼지, 버림받은 고양이, Arnewi의 물뿔속의 개구리, Dahfu의 사자와 관련되어있다. 그의 끊임없이 일어나는 중단없는 Becoming의 상태는 유대인 친구를 괴롭히기위하여 선택한 그의 직업, 즉 돼지 사육과 관련된다. Henderson의 끊임없는 내면적 육

30) Judith Moss, "The body as Symbol in Saul Bellow's *Henderson the Rain King*," *Literature and Psychology* 20. 2 (1970), p. 51.

31) Rodrigues, p. 235.

구는 게걸스럽게 먹고, 탐욕스럽고, 격렬하고, 잔인한 돼지의 속성을 나타낸다. 그의 가슴속에서 끊임없이 외쳐대는 “I want, I want”라는 목소리도 일종의 돼지의 속성으로 보여진다. 그가 돼지들을 팔고 아프리카로 떠나는 것은 그 속성을 변화시키는 최초의 단계이다.<sup>32)</sup>

고양이와 개구리의 episode는 Henderson에게 자기계시의 두가지 상황이 된다. 즉 그것은 그가 의존하고있는 속성의 두가지 요소인 폭력과 단순한 기술적인 발명에 의하여는 Being의 상태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 그는 한번은 그의 돼지농장에서 버림받은 고양이를 쏘려고 했었지만, 얼마 안되는 거리에서 놓쳐버린다. 이 일화는 비록 그가 좋은 총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폭력과 기술적인 수단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으로 결국 부질없는 행동임을 시사해 준다고 하겠다. Arnewi족의 가뭄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하여 시도한 개구리 폭파사건도 유사한 상황이다. Henderson은 과학기술의대표적 나라인 미국의 방법에 의해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지만 실패하고 그 부족을 전보다 더 나쁜 상황이 되도록 한다. 고양이와 개구리에 의해 상상된 재생에 대한 두 시도는 자신의 본질적인 문제를 손쉬운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에 실패로 끝났다. Henderson은 이제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새로운 시도를 해야만 되는 것이다.

Wariri족의 왕 Dahfu와 암사자 Atti와 함께한 실험을 통하여, Henderson은 폭력과 과학기술적인 재능에 의존하는 태도를 탈피하여 자연과 화합하는 것을 배움으로써, 그의 속성은 크게 변하게 된다. 즉 그는 돼지에서 사자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Dahfu는 Henderson과 면밀히 상담을 하는 동안 그의 육체적, 정신적 상태에 대해서 완전히 진단을 한 후, 암사자 Atti와 대면시키기로 결정한다. 사

---

32) Detweiler, pp. 404-406.

자 실험은 현대문명으로부터 아프리카로 돌아온 왕 Dahfu가 만든 특별한 치료방법이다. 그는 인류를 구하고자 하는 목표, 즉 “to benefit the whole world” (p. 276)와 “belief in the transformation of human material” (p. 236)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그 치료방법을 만들었다. Dahfu는 Henderson이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인간개조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dream-doer” (p. 235)이다. 그리고 Wariri의 행운으로 인하여 그는 20세기의 미국인을 처음이자 유일한 환자로서 맞이하게 된 것이다.

Henderson은 특이한 환자이다. 육체적으로는 스스로에게 조차 수수께끼이다(p. 238). 왕 Dahfu는 신체적인 면에서 그를 기념비적인 존재라고 생각한다(p. 216). 그는 Henderson의 몸 구석 구석을 통해 전 세계를 보며(p. 217) 그의 얼굴 특히 그 커다란 코에 매료된다. Amewi의 여왕이 말했던 것처럼, Henderson은 그 코로 온 세상의 냄새를 맡을 수 있다(p. 82). 그리고 그의 엄청난 어려움들이 그의 얼굴에 나타나 있다. Henderson은 자신의 얼굴을 정화되어야 하는 걱정들로 가득찬 가마솥(p. 275)이라고 왕에게 말한다. 왜냐하면 Henderson은 분노, 고통, 슬픔, 근심 그리고 공포로 들끓고 있기 때문이다. 그의 분노는 격렬하고 비이성적이다. 가끔 그는 Moby Dick이 그랬던 것처럼 빌딩 한채를 통채로 입에 넣어서 두동강을 내고 싶어한다(p. 122). 그는 “I am to suffering what Gary is to smoke” (p. 260).라고 말하며 Gary라는 공장도시와 연기가 가 지닌 불가분의 관계를 지적한다. 이는 곧 자신도 고통과 어쩔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음을 암시한다.

Bellow는 Henderson으로 하여금 현대사회의 치명적인 병들에 시달리게 하고 있다. 독일의 실존주의자들에 의하면, 현대인간은 두려움과 고통의 집에 눌러 신음하고 있다. Henderson은 그의 커다란 코로 그 역겨운 냄새를 느낄 수 있다. 현대인간은 소외 및 물순수감으로 시달리는 이방인이다. 그는 극심

한 근심의 고통을 가지고 있으며, 부조리의 신화를 믿는다. 두려워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현대인간은 두번째의 공포가 오기를 기다리게 된다. Bellow는 Eliot, Camus, Auden, Sartre, Conrad, Yeats등이 불평해 온 모든 유행하는 질병들을 주인공에게 감염시켜 놓았다.<sup>33)</sup> Henderson의 가슴속에서 늘 외쳐 대며 그를 괴롭히는 미친듯한 목소리는 바로 이 끔찍한 상태에서 치유되기를 바라는 것이기도 하다. Henderson이 죽음의 육체로 부터 해방되기를 원하며, 즉각적인 구원을 요구한다는 것을 Dahfu는 간과한다:

“Everything about you, Henderson-Sungo, cried out, ‘Salvation, salvation! What shall I do? What must I do? At once! What will become of me?’ And so on. That is bad.”

(p. 217)

Henderson은 육체뿐만 아니라 마음과 정신의 치료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환자임에 틀림이 없다. 그는 인간 존재에 대한 수없는 질문들을 갖고서 아프리카로 온다. Bellow는 의도적으로 주인공으로 하여금 서구문명인을 괴롭히는 주요한 철학적 문제들에 대한 답을 구하도록 만든 것이다. Henderson은 소크라테스는 아니지만, 자신이 귀족이면서도 건달처럼 행동하기때문에 “Who am I”라는 질문을 절박하게 던져본다. 그는 미국에서 “What is reality”라는 의문을 가졌었고, 거울속의 자신을 바라보면서 현실을 현실로 만드는 것이 자기인지 의아해한다. 그는 Sartre와 Camus가 사람들에게 믿게한 것처럼 진정 삶은 부조리한 것인지 자문해 본다. Henderson은 Becoming의 상태를 끝내고 Whitmanian being<sup>34)</sup>을 얻고 싶어한다.

33) *Ibid.*, p. 239.

34) Whitmanian being이란 그저 호흡하고 존재하는 것만으로 만족감을 얻고 행복과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p. 160).

Dahfu는 인간상황에 대한 통찰의 눈을 Henderson에게 제공한다. Dahfu를 통해서 Bellow는 인류에 대한 어떤 가설들을 제시하고있다. Henderson은 어떤 진실들을 받아들여야만한다. 즉 세상은 불가사의하며 어떤 철학자도 그것을 체계화할 수 없다. 더우기 인간은 삶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삶이 부여하는 조건들을 받아들여야만 한다.

Dahfu와 함께한 사자실험은 Henderson의 외적존재에는 분명한 영향을 주지 않지만 내적으로는 큰 변화를 야기시킨다. Henderson은 태어나면서부터 시작하여 아프리카로 오기까지 지구상에서의 모든 여정을 집약시키는 모든 절망, 고뇌, 그리고 근심을 울부짖으며 밖으로 토해낸다. 그에게서 발성되는 소리들은 온 시간을 통해서 구원을 위하여 끊임없이 반복되어온 인류의 기도문들이다:

Certain words crept into my roars, like "God," "Help," "Lord have mercy," only they came out "Hoooolp!" "Moooorcy!" It's funny what words sprang forth. "Au secours," which was "Secooooooooor" and also "De profooooondis," plus snatches from the "Messiah" (He was despised and rejected, a man of sorrows, etcetera). (p. 274)

Dahfu를 통해서, Bellow는 20세기 인류에게 믿음, 안목, 인간의 가능성에 대한 열정적인 신뢰라는 자양분을 제공한다. 그리고 상상력을 통하여 인간은 스스로를 변모시켜 나갈 수 있으며, 자신의 열망을 실현시킬 수 있다는 그의 생각을 전달해주고 있다:

Imagination is a force of nature. Is this not enough to make a person full of ecstasy? Imagination, imagination,

imagination! It converts to actual. It sustains, it alters, it redeems! . . . . What Homo sapiens imagines, he may slowly convert himself to. (p. 271)

Henderson이 완전히 치유될 뿐만아니라 메시아로 변모되는 과정은 Hopo 사냥에서 Dahfu와 함께 사자를 기다리는 동안에 가속화된다. 그는 자신을 방어할 “기저귀핀조차 없이”(p. 294) 야생사자와 대면해야 한다는 사실을 두려워한다. Dahfu에 대한 애정으로, 그는 이런 두려움을 극복하고 Dahfu와 함께 정글속으로 들어간다. Bunam의 배반에도 불구하고 Dahfu의 고결한 품행과 죽음의 목전에서 그가 보여준 침착한 용기는 Henderson에게 엄청난 영향을 주게된다. 사자의 사나운 모습은 정신을 강타하며, Henderson의 존재를 산산조각내는 갑작스러운 진리가 된다. Henderson은 이 세상의 적나라한 분노와 공포스러운 죽음의 현실을 만나게 되는 것이다. Henderson의 재생은 여기에서 시작된다. 재생 이후 문명으로의 복귀과정에서 그에게 닥치는 거의 모든 사건들은 후손들을 위한 새로운 복음을 지니고 온 새로운 인간의 복귀를 의미한다.<sup>35)</sup>

Dahfu가 죽은 후, Henderson은 더이상 무분별하지않고, 신중하게 그의 안내자와 새끼사자를 데리고 문명세계로 탈주할 계획을 세운다. 그는 이제 그의 “service ideal”을 실현시켜야할 임무를 맡게된 것이다. 그가 추구하던 변화는 실현되었고, 왜 모든 사람들이 정신을 돌이키기 위하여 그런 고통을 겪어야하는지 의아해 한다. 그러면서도 그 고통을 오히려 풍요의 상처라고 생각한다:

---

35) Rodrigues, p. 243.

“... the sleep is burst, and I’ve come to myself. . . . What I’d like to know is why this has to be fought by everybody, for there is nothing that’s struggled against so hard as coming-to. We grow these sores instead. Burning sores, fertile sores.” (p. 328)

Henderson은 석묘를 탈출하여 Baventai로의 어려운 여정 도중에 그의 “Velly forge element”<sup>36)</sup> (p. 320)를 발휘한다. 그는 사도 요한처럼 풀무치와 벌레들을 먹으면서 연명한다. 그리고 Hendel의 Messiah의 도입부를 인용하여 “The voice of one that crieth in the wilderness” (pp. 326-27).라고 말한다. Baventai에 도착한 그는 “I’m unkillable” (p. 330).이라고 말하며 인류는 죽일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윈스턴 처칠처럼 승리의 V자를 그리며(p. 327) 사람들에게 인사한다. 그의 말들은 이제 성서의 구절들로 가득하다. 자기 자신과 왕 Dahfu 사이의 사랑의 연속성을 천명하며, “Where I go he (the lion cub) goes” (p. 330).라고 말한다.

Henderson은 육체적으로도 변화를 겪으며 이러한 변화는 그의 얼굴에 나타난다. Harar에 이르러 그의 수염은 자주빛 셀비어 같이 보이는데 이색은 그가 왕족임을 나타내 주는 것이다. 그가 아테네에 도착할 쯤이면 그의 수염은 꽤 길게 자라나며 한쪽 수염은 반백으로 뺨어나고 그 사이사이에 금빛, 빨강, 검정, 자주색이 섞여있다. 대사관 직원들은 여권의 사진과 좀더 비슷하도록 수염을 깎을 것을 권한다. 그러나 Henderson은 자신이 미국인일 뿐만 아니라 그 여러색의 수염이 의미하듯 인류를 구성하는 모든 다른 인종들과도 일치점을 이루기 때문에 그러한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미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내려다본 대서양은 Henderson을 감동시키

36) velly forge란 미국 독립전쟁당시 워싱턴 장군이 패배의 겨울을 버티기로서 Henderson의 여정이 몹시 힘들었으나 그러한 정신으로 버티어 내었음을 의미한다.

고 행복하게 한다. 깊고 푸른 대서양은 그의 마음속에서 새롭게 발견된 자아의 깊이를 상징적으로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 여행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의 기억은 묘하게 또렷하게 되살아나서 그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고 그의 마음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온다(p. 336). 여러가지 떠올린 기억들 중에서 그는 Smolak이라는 꿈을 생각해낸다. Smolak은 형 Dick이 죽은 후 집을 떠나 방황하다가 온테리오의 어느 오락공원에서 만나게 된 늙고 버림받은 꿈이다. Henderson과 Smolak은 둘이 한 조가 되어 roller coaster를 타면서, 절망의 유대에 묶여 서로 동류의식을 느꼈었다:

By a common bond of despair we embraced, cheek to cheek, as all support seemed to leave us and we started down the perpendicular drop. I was pressed into his long-suffering, age-worn, tragic, and discolored coat as he grunted and cried to me. (p. 338)

이토록 Henderson은 그 자신의 삶에 돼지가 등장하기 전에 이미 꿈 한테서 깊은 인상을 받았다. Smolak과 자신이 한 쌍의 버림받은 자로써 서로가 영혼적 형제애를 느꼈다면, 이는 그가 돼지를 기르기 이전에 벌써 꿈으로부터 받은 동물적 속성이 있었음을 인정한다:

So before pigs ever came on my horizon, I received a deep impression from a bear. So if corporeal things are an image of the spiritual and visible objects are renderings of invisible ones, and if Smolak and I were outcasts together, two humorists before the crowd, but brothers in our souls-I enbeared by him, and he probably humanized by me-I didn't come to the pigs as a tabula rasa. (pp. 338-39)



변화되기 이전의 Henderson이 동물적 속성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갈등을 겪었던 반면, 지금은 이러한 기억속에서 자신의 동물적 속성을 인정함으로써 그의 변화된 면모를 보여주는 것이다.

마지막 장면에서 Bellow는 사랑과 상상력을 극화시키고 있다. Newfoundland에서 비행기가 연료공급을 받는 동안 Henderson은 또하나의 버림받은 자, 아버지와 어머니를 잃고 모국어마저 상실한 페르시아에서 태어난 미국인 고아를 끌어안는다. 새끼사자를 비행기에 두고 그 고아를 팔에 안고서 Henderson은 새벽의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비행기 주위를 춤을 추며 뛰어다닌다:

Laps and laps I galloped around the shining and riveted body of the plane, behind the fuel trucks. Dark faces were looking from within. The great, beautiful propellers were still, all four of them. I guess I felt it was my turn now to move, and so went running-leaping, leaping, pounding, and tingling over the pure white lining of the gray Arctic silence. (pp. 340-41)

북극의 눈위를 행복감에 넘쳐 춤을 추면서, Henderson은 그의 새로운 자아인식과 존재의식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Eusebio L. Rodregues는 Henderson의 이 춤이 기술에 대한 인간의 지배를 축하하며, 인류는 죽일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춤이며, 죽음에 대한 승리, 인류의 연속성에 대한 축하의 춤이라고 다음과 같이 말한다:

Henderson dances to celebrate man's mastery over

technology. He dances to confirm what Lily had stated earlier, that mankind is unkillable. His dance is also a victory over death, a celebration of the continuity of mankind—its past (the lion cub, who is King Dahfu in enigmatic form), its present (Henderson), and its future (the little Persian orphan) circling together in temporary harmony. Finally, Henderson's dance proclaims, without words, something of the highest importance to mankind, a message of love and of hope for all his brothers.<sup>37)</sup>

결국 Henderson의 춤은 인류에게 가장 고귀한 중요성을 갖는 것, 즉 사랑과 모든 인류형제들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천명하고 있다는 것이다. Henderson은 이제 자신의 진정한 자아의 탐구를 완성함으로써, 죽음이라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운명을 이끌어 나갈 새로운 활력을 얻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Henderson은 불안정한 Becoming의 상태가 아닌 안정된 Being의 상태에서 자신의 삶을 주도할 주체성을 획득하게 된 것이다.



---

37) *Ibid.*, p. 246.

## V. 결 론

Henderson에게 있어서 삶의 본능은, 비록 그것이 심하게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있기는 했지만, 몹시 강하다. 그는 자신의 관점을 변화시켜야하고 새로운 감정적 습관을 획득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을 만큼의 충분한 “삶의 의지와 수용의 원리”를 가지고 있다. 그는 누군가에게 세상이 돼지우리처럼 보인다면, 그것은 그 사람자체에 이미 돼지의 속성이 있기때문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비록 그의 이름 Eugene이 well-born을 의미하고 있기는 하지만, Henderson은 “I had ruined the original piece of goods issued to me” (p. 77).라고 말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본래의 인성을 스스로 망쳐버렸다고 생각한다. 그는 그의 영혼이 쓸모없이 되어버린 것들과 주인이 찾아가지 않아 버려진 것들이 가득찬 전당포와 같다고 느낀다(p. 81). 그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 뿐만 아니라 자기자신과도 갈등을 일으키고 그러면서도 해방을 몹시 갈망하는, 방향 없이 좌충우돌하는 정열을 가진 사람이다. 그 자신의 변화에 대한 욕구는 그의 내부에서 나오는 “I want.” “I want.”라는 외침에 의해 상징적으로 표현된다. 그 목소리는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갈망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을 인식하고자 하는 욕구이며, 피할 수 없는 인간조건으로부터 도피하고자 하는 바램이기도 하다. Henderson의 아프리카여행은 바로 이러한 욕구와 바램의 결과이다. 상상의 아프리카는 인간이 자신에 대한 진리, 혹은 더 나아가서 인류 그 자체에 대한 진리를 발견하는 곳으로서의 공간이다.

그는 스스로 교화되기 위해서 검은 대륙 아프리카를 여행한 것이었다. 그 결과 먼저 Arnewi족의 황량한 불모지에서, 그리고 Wariri 부족에게서 생명을 부여받는 변화를 경험한다. 요컨대 아프리카는 그가 문명적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문명의 “모태”이기도 하다.

더구나 그는 정신적인 변화를 성취하기 위해서 신체적인 고통을 경험한다. 사자속성을 받아들이면서 그는 돼지속성에서 벗어나게 되고, 사자의 우리속에서 인간적 고결함의 잠재적 능력을 현실로 받아들이면서 다시 태어난다. 무엇보다도 그는 진정한 삶을 찾기 위하여 죽음에 접근한다. 아이러니컬하게도, Henderson은 독실한 기독교신자로서, 평화와 질서를 자신의 삶의 방식으로 소유하고 있는 Romilayu의 안내를 받으며 아프리카를 여행한다. 이는 사람들의 보편적 삶의 모형인 기독교적인 방식이 아니라 자신의 방식대로 인생의 해답을 구하겠다는 Henderson의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독특한 방식으로 자신에게 사형선고를 초래한다. 그는 자신의 내부에서 용솟음치는 힘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여신 Mummah를 들어올리고 Rain King이 된다. 그러나 나중에서야 Henderson은 Rain King이라는 지위가 처하게 될 치명적인 운명의 두려움 때문에 아무도 Mummah를 들어올리기를 원하지 않았음을 알게 된다. Rain King으로서, 생명을 주는 자로서 거듭난 그는 이제 실제로 죽을 운명이 지워지게 된다. 결국 Henderson은 Dahfu의 죽음을 통해 상징적으로 죽음을 경험하므로써, 정신적 재생을 이룩하게 된다. Dahfu의 환생으로 여겨지는 새끼사자의 보호자로서 Henderson은 Dahfu의 부활과 원래 그가 지니고 있었던 고결함을 부여받게 된다.

Henderson자신의 말로 표현하자면, 끊임없이 Becoming의 상태이며 결코 Being의 상태가 되어보지 못한 그가 Nothingness와 직면함으로써 Being을 발견하게 된것이다. 결국 Henderson은 Nothingness에서 noble reality의 인식을 통해 Being 그 자체로 다시 태어나게 된 것이다.<sup>38)</sup>

그리하여 그의 언어는 Becoming과 관련이있는 “I want.”에서 Being의 “I serve.”로 변화를 겪는다. 이기주의를 나타내는 “I want.”가 이타적인 “she

38) Detweiler, p. 414.

wants, he wants, they want.”로 변화되고 want라는 동사는 imagine과 love로, I 라는 대명사는 they로 바뀌어진다. 이것은 Henderson의 이기주의적인 성격이 자아인식을 통하여 이타주의적으로 변모되었음을 드러내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다.

Dahfu는 Henderson에게 사랑에 대하여 가르친다. Henderson은 Atti와 Dahfu 사이의 상호적인 사랑, 즉 서로에게 자양분을 줄 수 있는 사랑을 인식하게 된다. 그는 왕에 대한 그의 사랑이 사자실험의 첫날에 끼친 영향을 느끼며 사랑과 감사의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서 소용돌이 친다. 사자의 날에는 Henderson은 자신보다도 Dahfu에 대해 더 걱정을 한다. 사랑은 그의 내부에서 강렬하게 움직이고 두려움을 없애주며 그의 의식속에서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말끔히 지워버린다. Henderson을 변모시키는 것은 동물적 속성으로부터 얻어낸 활력소가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넘쳐흐르며 그 자신의 정신을 정화하고 그와 더불어 두려움과 근심이라는 악마를 몰아내는 자유로운 사랑의 정신이다. 그리고 reality를 reality로 만드는 것은 사랑과 인간적 형제애임을 깨닫는다. 따라서 그를 괴롭히던 죽음도 삶의 한 과정인 자연스러운 현상임을 수용하게 된 그는 도망치듯 빠져나왔던 문명사회로 사랑의 메시지를 가지고 서둘러 돌아간다. Henderson은 문명사회로의 복귀과정에서 이디오피아, 수단, 이집트, 그리고 “문명의 요람”(p. 22)인 지중해를 지나 그리이스, 로마, 파리, 런던, 뉴펀들랜드(Newfound)를 거쳐 신대륙인 미국을 종착지로 설정한다. 이들 체류지들은 서구문명의 발달단계를 따르고 있으며, Henderson의 재생과 자아성장과정의 이미지를 확연히 부각시키고 있다. 그리고 Henderson이 환회에 차 춤추는 뉴펀들랜드는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Henderson의 새로 발견한 자아인식을 상징하고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Henderson은 이제 새로운 자아개념을 가지고 문명사회에서 그가 의지하는

---

바 대로 마음껏 그의 “service ideal”을 펼칠 수 있게 된 것이다.

Dahfu가 Henderson에게 말했던 것처럼, Homo sapiens는 자신이 상상하는 방향으로 서서히 변화되어간다고 생각할 때, 이 소설은 우리의 사고작용의 변화를 통하여 새로운 인간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상상력을 통한 재생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다.



## 참 고 문 헌

### I. TEXT:

Bellow, Saul. *Henderson the Rain King*. New York: Penguin books, 1976.

### II. SECONDARY SOURCES:

Axelrad, Steven Gould. "The Jewishness of Bellow's Henderson,"  
*American Literature* 67. 3 (1975).

Borrus, Bruce Jr. "Bellow's Critique of the Intellect," *Modern Fiction Studies* 25. 1 (1979).

Bradbury, Malcolm. *Contemporary Writers: Saul Bellow*. New York: Methuen, 1982.

Clay, John J. *Saul Bellow: In Defense of Man*.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68.

Cohen, Sarah Blacher. *Saul Bellow's Enigmatic Laughter*. Chicago: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1974.

Detweiler, Robert. "Patterns of Rebirth in *Henderson the Rain King*,"  
*Modern Fiction Studies* 12. 4 (1966-67).

Donald, Miles. *The American Novel in the Twentieth Century*. New York: Harper & Row Publishers, Inc., 1978.

Edwards, Duance. "The Quest for Reality in *Henderson the Rain King*,"  
*Dalhousie Review* 53. 2 (1973).

- 
- Fuchs, Daniel. *Saul Bellow: vision and revision*.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1984.
- Goldfinch, Michael. "A Journey to the Interior," *English Studies* 63 (1962).
- Guttman, Allen. "Bellow's *Henderson*," *Critique* 7. 3 (1965).
- Haper Jr., Howard M. *Desperate Faith*. Chapel Hill: Univ. of North Carolina Press, 1974.
- Hassan, Ihab. *Radical Innocence: Studies in the Contemporary American Novel*.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1.
- Knipp, Thomas R. "The Cost of Henderson's Quest," *Ball State University Forum* 10. 2 (1969).
- Leach, Elsie. "From Ritual To Romance Again: *Henderson the Rain King*," *Western Humanities Review* 14. 2 (1960).
- Markos, Donald W. "Life Again Death In *Henderson the Rain King*," *Modern Fiction Studies* 17. 2 (1983).
- McConnell, Frank D. *Four Postwar American Novelist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7.
- Moss, Judith. "The body as Symbol in Saul Bellow's *Henderson the Rain King*," *Literature and Psychology* 20. 2 (1970).
- Porter, M. Gilbert. *Whence the Power?: The Artistry and Humanity of Saul Bellow*. Columbia: Univ. of Missouri Press, 1974.
- Rodrigues, Eusebio L. "Saul Bellow's *Henderson* As Mankind and Messiah," *Renaissance* 30. 4 (1983).



---

Scott Jr., Nathan A. *3 American Moralists: Mailer Bellow Trilling*,  
Indiana: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1973.



---

<Abstract>

*Henderson the Rain King:*  
Henderson's Journey into Africa and Existential Quest for Self\*

Han, Young-Sook

English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Ch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Byun, Jong-Min

Saul Bellow writes about people who make a more spirited resistance to the forces of our time in order to keep human possibilities and dignity. And he has firmly presented himself as a writer urgently in pursuit of a broader, more flexible, more comprehensive account of what human beings are, who we are, and what is the purpose of this life. In *Henderson the Rain King*, Bellow tries to solve the most fundamental problem of life, that is, the problem of confronting death. This thesis

---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August, 1995.

---

attempts to discuss Henderson's spiritual renewal process through his journey into Africa in order to escape from the fear of death and dissolve the desires of his heart.

The desire for life is strong in Henderson. He has enough understanding of life to realize that he must change his perspective and acquire new emotional habits. He has come to realize that if the world appears to be a pigsty to a man, it is because the man already has something of pig nature in him.

The impetus for change comes from within, intuitively, as Henderson hears a voice crying "I want. I want." The voice does not express desire in the ordinary sense, but rather a need for finding one's own identity and a cessation from the neurotic, hyperactive flight from the inescapable human suffering. Henderson's journey into Africa is an attempt to follow his inner imperatives for true self.

He experiences the physical in order to find the spiritual. By becoming a lion-nature, he throws off pig-nature and is born anew, out of the lion's den, into the reality of the human potential for nobility. Above all, he approaches death to find real life, and finally accomplishes spiritual rebirth, experiencing symbolic death through Dahfu's death. So Henderson is changed from becoming to being, from selfishness to altruism, and returns to society with the message of love learned from Dahfu. Therefore, he is able to exhibit his "service ideal" with love for mankind gained through self-realization.